

입시중심이 아닌 차별화된 음악교육 제공

도교육청 - 전북대, '음악아카데미' 업무협약 체결

전북교육청과 전북대학교가 '전북 음악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승환 교육감과 김동원 총장은 18일 오전 도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학생 음악 재능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음악적 재능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소질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전북대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음악교육 및 음악분야 진로 지도를 지원하고,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수진 및 시설을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맡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음악교육 대상자 선발에 있어 상호 협의하고, 음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를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세부 교육 내용으로는 미래세대에 적용 가능한 음악교육, 전공악기별 전문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 창의융합 예술교육,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음악분야 진로 지도 등이 있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성과 분석을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음악교육을 위한 협약은 실기나 입시중심의 음악교육이 아닌 창의융합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음악교육 기반을 구축·확산해 나가는 데 두 기관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은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직속기관(818개 학교 및 기관) 건물, 학교 내 공사장, 축대·옹벽 등 시설물 등 도내 전체 교육 시설에 대해 이루어지는 이번 안전대진단은 각 기관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자체점검과 민관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물 및 시설물 위험요소 점검과 학생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단 및 운동장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시설 안전 점검은 해빙기 지반침하로 인해 생길 붕괴 위험과 화재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점검결과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조기 해소가 되도록 투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가 시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수행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김승환 교육감과 김동원 총장이 18일 오전 도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학생 음악 재능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 교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해빙기 안전점검 병행 실시

전북교육청은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직속기관(818개 학교 및 기관) 건물, 학교 내 공사장, 축대·옹벽 등 시설물 등 도내 전체 교육 시설에 대해 이루어지는 이번 안전대진단은 각 기관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자체점검과 민관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물 및 시설물 위험요소 점검과 학생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단 및 운동장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시설 안전 점검은 해빙기 지반침하로 인해 생길 붕괴 위험과 화재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점검결과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조기 해소가 되도록 투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가 시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수행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시설 안전 점검은 해빙기 지반침하로 인해 생길 붕괴 위험과 화재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점검결과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조기 해소가 되도록 투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가 시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수행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특수교육 보조인력 전문성 향상 연수 실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특수교육 보조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지도사와 사회복무요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담당자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는 동시에 특수교육 담당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먼저 특수교육지도사 308명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시각장애, 정서행동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강의와 장애학생의 응급처치 방법, 관계와 소통, 장애인권 연수 및 장애 이해를 돕기 위한 예술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또 오는 27일에는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5명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수가 진행된다.

전북지방병무청 담당자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자세, 전북병화인권연대 삼일활동가의 장애인권 감수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년도까지는 이틀간 진행했던 연수를 올해는 5일간으로 확대한 만큼 새로운 특수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장애 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특수교육 보조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지도사와 사회복무요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담당자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는 동시에 특수교육 담당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먼저 특수교육지도사 308명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시각장애, 정서행동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강의와 장애학생의 응급처치 방법, 관계와 소통, 장애인권 연수 및 장애 이해를 돕기 위한 예술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또 오는 27일에는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5명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수가 진행된다.

전북지방병무청 담당자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자세, 전북병화인권연대 삼일활동가의 장애인권 감수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년도까지는 이틀간 진행했던 연수를 올해는 5일간으로 확대한 만큼 새로운 특수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장애 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새롭게 시작해 보자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교육청, 중등 교사 대상 연수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중등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작해 보자, 중등 국어과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주제로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초·중등 교사 대상 10시간의 집중워크숍과 5시간의 간담회, 초등교원 워크숍을 통해 170명의 선도교원 연수를 마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독서가 단순한 취미의 영역을 넘어 '문해력'이라는 개인의 역량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읽기·말하기·글쓰기·인문 교육의 유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과정 중심 평가와 같은 일상의 장면에서 읽고, 말하며, 쓰고,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는 교육과정 내 독서교육 프로그램인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독서는 평생 독자 양성의 중요한 단초"라면서 "앞으로 국어과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원 스톱 원 북 읽기' 같은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해 독서 흥미도를 높이고 효능감 높은 독서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 종목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이 값진 메달을 획득했다.

전북 컬링팀, '금' 보다 값진 은메달 획득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 종목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이 값진 메달을 획득했다.

전용 구장(경기장)이 없어 타 지역과 민간 경기장 등을 옮겨 다니며 훈련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도 은메달 2개를 전북선수단에 선사한 것이다.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강원, 충북 등에서 열리는 동계체전을 앞두고 컬링 종목이 사전 경기로 충북 진천에서 진행됐다.

전주 서곡중은 우승 후보였던 경기도팀을 8강전에서 7대4로 승리하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전까지 진출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전주여고 컬링팀도 이날 결승에 진출했다. 비록 금메달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서곡중과 전주여고팀은 이번 대회에서 선전했다.

/장은성 기자

이들은 도내에 컬링 전용구장이 없어 지난 1월부터 강릉지역에 머물며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 값진 메달을 수확한 것이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투혼을 발휘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훈련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박수를 쳐주고 싶고 선수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전용구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민관협력 공모사업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기대

도교육청, 40개 선정학교 대상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워크숍 가져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8일 오후 2시 8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학교 40개교를 대상으로 민관합동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주민참여 예산의 운영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고 주민참여 제안 공모사업 선정학교에 대한 지원 및 운영 방안을 안내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제안사업을 공모해 총 121개 사업을 접수했으며 예비심사를 거친 80개 사업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총 40개 사업을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워크숍은 컨설팅단과 사업시행 대상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사업제안자, 교육지원청 예산담당자,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사업 선정 추진경과 설명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비 지원 계획 ▲질의·응답 및 기타 전달사항 ▲컨설팅단 4팀과 40개교의 의견나눔이 이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업을 제안하고 교육예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공동체가 예산운영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워크숍은 컨설팅단과 사업시행 대상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사업제안자, 교육지원청 예산담당자,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사업 선정 추진경과 설명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비 지원 계획 ▲질의·응답 및 기타 전달사항 ▲컨설팅단 4팀과 40개교의 의견나눔이 이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업을 제안하고 교육예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공동체가 예산운영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